

목포 ‘태양광 산업’ 중심지로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개원...시험생산·연구개발 등

전남 서남권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의 중심이 될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이 23일 목포시 석련동에 문을 연다.

서남권 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은 1만1525㎡ 부지에 본관동(3층)과 시험제작동(2층)을 합해 전체면적 3544㎡ 규모다. 열료감응 태양전지 라인에 있는 제품개발실, 태양전지 부품·소재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특성평가실 등의 실험실이 마련됐다.

본관동 창업보육실에는 이노베이션실리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호남지역본부 등 모두 8개의 태양광 산업관련기업 및 기관이 입주했다. 시험제작동에는 고효율 태양전지 연구개발, 기업의 시험생산 및 태양광 관련 교육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셀라인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생산, 고가장비 활용, 공동연구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각종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남권 소재 태양광 관련업체의 현장 맞춤형 연구소 및 시제품 제작공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동연구개발, 시험생산, 교육훈련 등을 수행한다.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 각종 인프라를 바탕

으로 서남권 소재 태양광 관련 업체의 현장 맞춤형 연구소 및 시제품 제작공장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이 연구원이 지역 태양광 관련 기술·소재·부품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전남도와 함께 앞으로 250억원(건축비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장학금 확대·인성 교육에 2200억 투입”

목포시 2차 교육발전 계획 수립

목포시는 다양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2차 교육발전 계획(2012~2016년)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1차 교육발전 계획(2007~2011년)의 목표인 교육 성취도,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 성적지상주의, 엘리트 교육보다는 다양성에 무게를 뒀다. 내년부터 시작될 2차 발전계획에는 2200억원이 투입된다. 무상급식

확대로 1차 계획 때보다 1000억원이 늘었다. 다음달 초 시 교육발전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될 2차 계획을 보면 그동안 소외받던 예체능,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에게 장학금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학교 관련약부나 다도에철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인성교육에 무게를 두고 모든 학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순창 고사목 장승으로 환생

순창 고추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형상의 장승을 감상하고 있다. 순창군은 읍내에 있던 노거수 고사목 2그루를 장승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lee@

전북 10월 무역수지 5억8천만달러 흑자

10월 한달간 전북지역에서 5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2일 군산세관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9억9000만 달러를 달성해 5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품 중 기계류(118.6%)의 상승률이 제일 높았고, 철강 제품(52.0%), 화공품(41.5%), 종이류(21.3%), 전기·전자제품(15.0%) 등도 늘었다. 수출 지역별로는 동남아(58.5%), EU(58.2%), 미국(48.6%), 중국(40.7%) 모두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수입품목은 주요 원자재 단가의 상승으로 비철금속(132.2%), 철강재(71.2%), 광물(37.2%), 화공품(24.8%) 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았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외국인 전용 면세점 만들자”

전주시 ‘한스타일’ 관광상품 개발 등 유치전략 마련

전주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인전용 시내 면세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지난 8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 대통령 보고내용으로 “2011년말까지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관세법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도 관세청 공고후 지자체별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자격요건을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20년 만에 예정된 외국인

전용면세점 추가 허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북지역 면세점을 전주에 유치·운영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스타일 진흥원’ 일부를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으로 유치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스타일 진흥원내 공연장, 음식점(비빔밥), 한지산업 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관광패키지 상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는 서울에서 KTX로 2시간, 고속버스로 2시간 30분, 새만금(군산)에서 차량으로 50분 거리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2배 가까

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주시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입점시 전주와 전북지역 주요 특산물 판매와 기타 중국인이 선호하는 화장품, 가전제품, 의류 등을 판매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50여 지자체가 면세점 신규개설을 희망하고 있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한스타일 상품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조선업체 국내 첫 ‘쌍두선’ 제조

앞뒤로 운행 연료절감...신진조선소, 남이섬 남품



투가 2개여서 관리비가 더 들고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나동문(56) 대표는 “배가 앞뒤로 자유롭게 운항하면 승객이나 종사자들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오랜 연구 끝에 스쿠루가 앞뒤로 장착된 선

박을 만들게 됐다”면서 “현재 이 유람선은 남이섬에서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 요술램프를 닮은 수려한 외형으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김대겸 본부장은 “지역에도 대형 마트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전통시장이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하루 빨리 자생력을 회복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무안군, 내년 2월까지 체납액 강제 징수

무안군은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절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전 체납자에게 서한문과 함께 납부 최고서를 일제히 발송해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10월 말 기준 무안군의 총체납액은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34억원

▲특별회계가 29억원 등 93억원이다. 군은 이 가운데 총 30억원 정리를 목표로 내년 2월말까지 강도높은 징수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군은 각 부서별 분임징수관 책임하에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고질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처분,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고,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조회해 추심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목포대-무안군 지역발전 상생 협약

목포대학교와 무안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목포대와 무안군은 22일 지역발전과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프로그램의 공동수행, 연구인력 지원 및 정보 등의 상호

교류를 위한 협력 ▲양과, 백련, 갯벌 등 무안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 ▲무안군 지역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무안군 관내 보건소를 목포대 약학대학 실무실습 장소로 활용 등을 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단 신

日 커피社, 익산 식품 클러스터내 공장 신설

일본 닛트(DART)커피 주식회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단과 투자협약을 맺고 익산 식품 클러스터내에 커피 및 관련 제품 신규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일본 닛트

커피 주식회사와 투자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닛트커피 주식회사는 서일본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닛트커피 그룹 중 하나로서 서울에도 닛트코리아 주식회사를 두고 있는 일본의 대표 커피제조업체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정읍 ‘우박피해 사과 사주기’ 3일만에 14t 판매

정읍시가 지난 10월 우박피해를 입은 사과사주기 운동 대대적 전개해 3일만에 14t의 사과를 판매했다. 시는 전북도와 긴밀히 협의, 전북도청을 비롯한 인근 시·군과 ‘우박피해 사과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상품성을 잃었으나 먹기

에는 충분한 사과를 8kg 단위로 포장해 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정일 과수영농조합법인 박홍성 대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운동을 전개해주시 농가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063-535-8101)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경찰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권’ 교육

김제경찰서(서장 조응식)는 지난 22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직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긴급 임시조치권’ 등 단계별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김제경찰은 농·축산물 절

도를 효율적으로 단속·검거하기 위해 마을회관 등을 수시방문해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농·축산물 절도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 맞춤형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성기자 hnews@

남원시 지리산 문화연구단 ‘국제학술대회’

지리산권문화연구단은 최근 남원시청 강당에서 ‘지리산 세계유산, 무엇을 증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구성과 지리산(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허권 부위원장) ▲중국 성산류 복합유산과 문화경관(중국 베이징대 진요화 교수) ▲세계자연유산이 되기 위한 조건(강원대 우경식 교수) 등 주제는문이 발표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